2011년 오리 부화업 전망

(사)한국오리협회 **이신** 이사
화정축산영농조합 대표

– 목 차 –

1. 여는 말
2. 2011년 새끼오리 생산 전망
3. 2011년 부화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나)종오리 Data-Base 구축
다)무분별한 시장 진출
라)체리밸리 종오리의 수입제한
마)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
바)AI 발생 가능성
사)적합한 사료의 사용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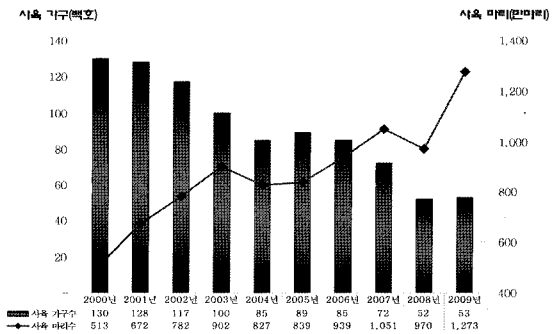
1. 여는 말

다사다난 했던 2010년이 저물고 2011년이 밝았다. 아시다시피 오리 업계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2010년은 오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력을 경험한 한 해였다. 부화업에 직접 종사하는 필자도 그 성장력과 발전 가능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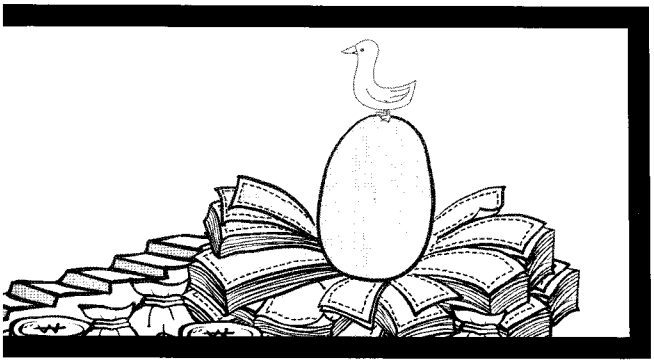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오리 부문의 총생산액이 2008년 1조 1544억원에서 2009년 1조 2324억원으로 약 7% 정도 증가하여 계속해서 오리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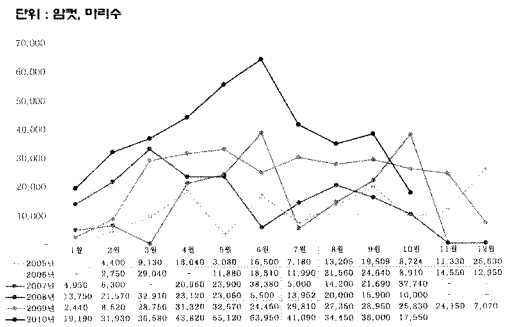
2010년의 통계자료가 집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장률이 10%를 상회하여 역대 최고의 액수를 기록하리라고 예측해 본다. 오리 총생산액 2조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2010년은 오리산업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한 해로 오랫동안 오리업계 종사자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리 산업의 성장세가 얼마나 극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프 1〉을 보면 오리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뿐만 아니



【그래프 1】 오리 사육수수 및 가구수의 변화(2000~2009년)
–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그래프 2】 종오리 수입 실적(2005~2010년10월)-오리협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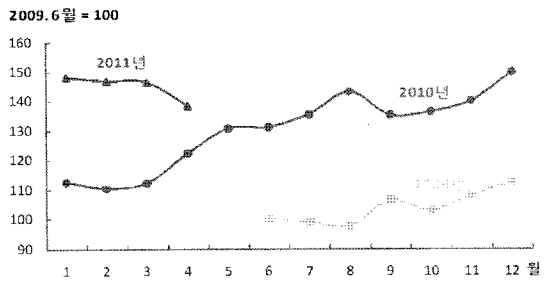
라 계속해서 농가당 사육수수가 늘고 있어, 전업화와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은 사육수수가 2009년에 기록한 1273만 수보다 20~30% 성장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전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축산업에는 워낙 변수도 다양하고 많을뿐더러, 특히 오리의 경우 축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해 각종 통계자료가 미미하고 부족하여, 전망과 예측은 더욱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1년 오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와 외부의 여러 변수들을 짚어 보면서, 나름대로 2011년 오리 부화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망하고자 한다.

2. 2011년 새끼오리 생산 전망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던 종오리 수입은 2009년에 27만 1천여 마리로 전년 대비 50.9% 증가한 수치를 보이더니, 2010년은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기준 38만 1천여 마리로 40.7% 증가하였다.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그 만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어느 때보다 많이 찾아주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9년에 입식한 종오리는 2010년에, 2010년 입식한 종오리는 2011년에 생산되는 새끼오리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급격하게 증가한 종오리 수로 인해서 2011년 상반기에 자칫 새끼오리의 공급이 과잉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 전망(그래프 3)을 보면 2010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4월까지의 새끼오리 생산 잠재력을 사상 최대로 예측하고 있다. 2011년의 오리고기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증가하고 있는 새끼오리 수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그래프 3】 새끼오리 생산 잠재력 추이-농업관측센터 자료

못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온다면 새끼오리 가격 하락은 물론 오리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부화업에 종사하는 생산주체들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폐오리 도태, 신규입식 자제 등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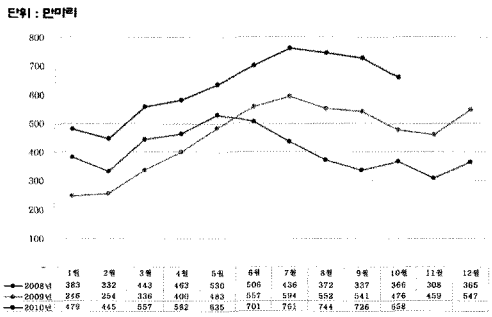
3. 2011년 부화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앞서 언급했지만 축산업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종오리의 수입실적과 새끼오리 생산 능력만으로 부화업을 전망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산업 내외의 여러 변수들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하며, 각각의 변수들에 의해 부화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전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4년 바닥을 찍은 이후 2005년 970g/인에서 2009년 2110g/인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도압 통계(그래프 4)를 보면 2010년 소비량도 2009년에 비해서 당연히 증가하였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웰빙바람이 불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오리고기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육류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육류를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오리고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소비 경향이 지속되어 2011년에도 계속된다면, 2009년부터 시작된 업계의 호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최종수요자 단계에서 수요가 늘어 난다면 오리고기 생산의 시발점인 부화업도 동반 성장할 것이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자들의 수요를 위축시킬만한 경제적인 요인도 없어 보이며,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예측정보도 소비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한대로만 수요가 증가해 준다면 늘어난 새끼오리를 판매할 곳이 없어 처치가 곤란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프 4】 오리 도압 현황-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종오리 Data-Base 구축

종오리 Data-Base 구축 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오리 Data-Base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정확한 통계수치들이 쌓인다면, 종오리 사육현황, 새끼오리의 생산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경제주령을 넘어선 종오리의 조절이라든지 질병상황 등 부화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관리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종오리 Data-Base 구축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종오리 Data-Base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무분별한 시장 진출

오리 산업이 유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산업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자 너도나도 오리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착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공급으로 인해 발전하고 있는 오리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오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오리협회에서도 신규 진입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경계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체리밸리 종오리의 수입제한

체리밸리사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체리밸리 종오리 수입이 제한되었다. 또한 질병이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2011년에도 수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원종오리 사업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체리밸리사와 프랑스의 그리머드사, 두 곳에서 종오리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그리머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종오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2곳이었던 종오리 수입 통로가 1곳으로 줄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머드사의 사정에 의해 국내 종오리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종오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새끼오리를 공급해주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특히, 체리밸리 종오리가 우리나라 종오리 사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마)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오리는 질병에 강하다' 라는 통설이 있다. 이런 통설에 대한 맹신으로 오리는 다른 축종에 비해 질병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여름이 지나고 많은 농장들이 질병으로 인해 폐사, 산란성적의 급격한 하락 등의 생산성 저하를 겪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살모넬라와 대장균 감염으로 전남에서만 100만수의 오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왜냐하면 살모넬라나 대장균 감염증은 방역과 사양관리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지켜지면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오리는 질병에 강하다' 라는 생각으로 질병관리, 환경관리, 차단방역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허술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오리가 질병에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면 제아무리 튼튼한 오리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부화업에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성의 저하가 굉장히 뼈아프다.

사료비는 사료비대로 들어가고, 새끼오리 판매 감소로 수입도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차단방역과 사양관리는 축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다. 기초적인 것들이 망각된다면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2011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제때에 새끼오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바) AI 발생 가능성

우리 같이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겨울만 오면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AI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2008년

에 발생한 AI로 큰 홍역을 치렀고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소와 돼지는 2010년에만 3번의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구제역이나 AI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한 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재앙이다.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이와 같은 질병들이 통상적인 발생 시기를 벗어나 발생하고 하고 있어 1년 365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사) 적합한 사료의 사용

종오리의 육종이 개량되면서 농장성적이 향상되는 만큼 질병에 취약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될 예정이어서 농장의 생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양관리의 강화와 적합한 사료의 사용이다.

특히, 오리 사육에 있어 사료비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합한 사료의 선택은 농장의 성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무항생제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곰팡이 독소와 같은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며, 오리의 질병저항력을 길러주고, 오리의 생산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심적인 생산과 영업을 하는 사료회사를 선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이런 사료를 사용한다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는 오리 부화업을 비롯한 오리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위기의 시대를 미리 잘 대비한다면 친환경 축산물 시장을 오리산업이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될 것이다.

4. 맺음말

2011년에는 부화업에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재해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비록 몇 가지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2011년 오리 부화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몇몇 부정적인 요소들은 가볍게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오리고기라는 제품을 생산해 놓고 마땅히 팔 곳이 없다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국민들의 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오리 고기가 계속해서 사랑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오리고기 수요가 늘어나면 오리고기 생산의 첫 단계인 부화업의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다. 축산업에서는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끼오리 생산이든 육용오리 생산이든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두에게 2011년은 2010년보다 더욱 발전하여 성적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